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1월 3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30일(수) 오전 6시 부터 보도)

배포일시	2016. 11. 29 (화)	담당부서	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
담당과장	전윤종 과장(044-203-5620)	담 당 자	손효정 사무관(044-203-5625)

“ 보호주의 극복 · 다자체제 강화로 글로벌 통상 활력 회복해야 ”

- 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, 세계적 저성장 해법 논의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한국무역협회,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**“무역,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 (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)”**이라는 주제로 「**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콘퍼런스** (Seoul Conference on Trade & Industry)」를 열었다.

○ 콘퍼런스에 **이샤오준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차장**, 「공격받는 자유무역(Free trade under fire)」의 저자이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**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학 교수** 등이 참가해 **저성장에 빠진 세계 경제의 성장 계기를** 찾기 위한 **통상 분야 주요 과제**들을 논의했으며,

○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 국제 **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상황**을 반영해 **주한외교공관, 국내·외투기업, 외국상의, 학계 등**에서 **역대 최다인 500여명 이상**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<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요 >

▷ **일시/장소** : ‘16. 11. 30 (수) 10:00～17:30, 그랜드인터컨티넨털H 그랜드볼룸 (5F)

▷ **주최/주관**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▷ **참 석 자** : 산업통상자원부 차관, 한국무역협회장,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,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차장 (Yi Xiaozhun), 주한 외교공관(영국・독일・캐나다 등 약 40개국 대사・대사대리), 국내·외투 기업, 외국상의 등 500여명

▷ **주제** : “무역,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 (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)”

▷ **주요연사** : 이샤오준(WTO 사무차장), Douglas Irwin(美다트머스대 교수), Simon Evenett(스위스 장크트갈렌대 교수), Simon Lester(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), 유키코 후카가와(와세다대 교수), William Powers (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실장), Jose Luis (주한멕시코대사), Rachel Bae(OECD 선임참사관) 등

□ **우태희 차관은 환영사**를 통해 "**전 세계 교역이 위축**되고 **보호주의 확산이 우려**되는 현 상황에서, **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**하고 **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**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." 라고 말하고,

○ 보호주의 극복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, ①**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**을 통해 **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**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**피해집단 지원제도(TAA; Trade Adjustment Assistance)** 강화

○ ②**보호무역조치 감축 등** 각 국의 **실질적인 행동**과 이를 촉진할 **다자 차원의 제도적 장치** 마련

○ ③**다자무역체제를 지속·강화**하기 위해 **세계무역기구(WTO)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**하고 **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TP)·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(RCEP),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(TTIP) 등의 메가 자유무역협정(FTA) 논의를 지속** 이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.

○ 한국은 그간 **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(FTA)을 발효**했고, 앞으로도 **변함없는 대외개방 기조 하에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**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, 이번 컨퍼런스가 **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조 강화에 이바지**할 것이라고 평가했다.

□ 이 컨퍼런스는 **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**되었으며, 각 세션마다 **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**을 진행했다.

○ 최근 '**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**'을 **논의한 기조 세션**에서 **더글라스 어윈(Douglas Irwin)**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, 최근의 세계 교역 둔화는 '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**경기적 요인**과 함께 세계 가치사슬(글로벌 밸류체인) 심화,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**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**한 결과이며,

- 1990/2000년대에는 무역자유화, 신흥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 특수 요인(unique factors)들이 세계 교역을 견인하였던 것으로 향후 급격한 교역 증가는 어려울 것이나, **여전히 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**이며 각국은 **보호무역주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** 한다고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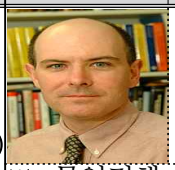
○ 이어 '**기로에 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의 미래**'를 전망한 **2세션**에서 **사이먼 레스터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**는 발제를 통해, "**환태평양동반자협정**의 향방은 **트럼프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** 알 수 있으며, 미국이 **'신뢰도 저하', '아태지역 영향력감소'** 등을 고려해 향후 **환태평양동반자협정**관련 **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**도 있다."라고 말했다.

○ '**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발전 방안**'을 논의한 **3세션**에서는 **윌리엄 파워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**가 "디지털무역은 **무역비용 감소, 시장접근성 개선**을 통해 **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**이 될 것"이라고 밝히며, "각국은 **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등의 무역협정**을 통해 **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**해야 한다."라고 제언했다.

□ 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**향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전망**해보고, 이에 대한 **우리와 세계 각 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**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,

○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**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 공조**를 **주도해 나갈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< 참고: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기조 세션 주요 토론자 >

No.	사진	성명	소속 및 직책	주요 약력
1 (발제)		**더글라스 어윈** Douglas Irwin	**美다트머스대 교수** Professor, Dartmouth College	-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부교수 -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제금융국 이코노미스트 - 美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
	※ 무역정책 및 세계교역史의 권위자로서 저서 '공격받는 자유무역'은 자유무역의 오해와 진실을 명쾌히 정리한 명저로 평가, 美FRB·백악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은 물론 정책분야의 전문성도 보유			
2		**이샤오준** Yi Xiaozhun	**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** Deputy Director General, WTO	- 세계무역기구 상임 중국대표 - 중국 상무부 부부장 - 주미 중국대사관 상무처 서기관 - 베이징경제연구소
	※ 中 상무부 부부장(차관) 재임경력 등 통상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아제베도 사무총장에 의해 최초의 중국인 WTO 사무차장으로 지명('13.8월), WTO-중국간 관계 강화 등에 기여			
3		**사이먼 이브넷** Simon Evenett	**스위스 세인트갈렌대 교수** Professor, University of St.Gallen	-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- 미시간대 로스쿨경영대학원 객원교수 - 세인트갈렌대 MBA 프로그램 학술국장
	※ 국제 민간 감시기구인 GTA(Global Trade Alert) 대표로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을 면밀히 분석·경고하고 있으며, G20 등 다자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강화를 강조			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손효정 사무관(☎044-203-56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**일시/장소** : '16.11.30(수) 10:00~18:00 / 그랜드인터컨H 그랜드볼룸(5F)

○ **주최/주관**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

○ **참석자** : 산업부 2차관, 무역협회장, KIEP 원장, WTO 사무차장, 주한 외교공관 대사, 국제기구, 외국상의, 학계, 국내·외투기업 등 500여명

○ **주제 : "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"**

- (1세션) Trade for Growth : Opportunities and Challenges
- (2세션) TPP at the Crossroads : The Future of TPP
- (3세션) Digital Trade : A New Engine for Global Trade

□ 주요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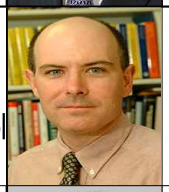
시간	프로그램
9:50~10:00 ('10)	포토 세션
10:00~10:20 ('20)	개회식
10:20~12:00 ('100)	(세션1) 성장을 위한 무역 : 기회와 도전요인
12:00~13:30 ('90)	오찬
13:30~15:10 ('100)	(세션2) 기로에 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: TPP의 미래
15:10~15:40 ('30)	휴식(Coffee Break)
15:40~17:30 ('110)	(세션3) 디지털 무역 : 세계 교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

□ 세부 프로그램

시간	프로그램
10:00~10:20	**개회식(Opening Ceremony)** · 개회사: 무역협회 회장 · 환영사: 산업부 2차관, KIEP 원장 · 축사: WTO 사무차장
10:20~12:00	**(Session I) Trade for Growth : Opportunities and Challenges**
	<논의 내용> 세계 교역 둔화 원인 및 전망,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무역과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등 **<참여자>** · 사회자 : **박태호** (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) · 발제자 : **Douglas Irwin** (美다트머스대 교수, '공격받는 자유무역' 저자) · 토론자 : **우태희** (산업부 2차관), **이샤오준** (WTO 사무차장) **Simon Evenett** (스위스 장크트갈렌대 교수)
12:00~13:30	**오찬**
13:30~15:10	**(Session II) TPP at the Crossroads : The Future of TPP**
	<논의 내용> 美신행정부하 TPP의 미래, 주요 회원국 반응 및 향후 대응방안 **<참여자>** · 사회자 : **안덕근** (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) · 발제자 : **Simon Lester** (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) **유키코 후카가와** (와세다대학교 교수) · 토론자 : **Jose Luis** (주한멕시코대사), **Jeffrey Wilson** (호주 머독대 교수) **William Powers** (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) **정철**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)
15:10~15:40	**휴식**(Coffee Break)
15:40~17:30	**(Session Ⅲ) Digital Trade : A New Engine for Global Trade**
	<논의 내용> Digital trade 시장 현황 및 전망,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등 **<참여자>** · 사회자 : **최병일**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· 발제자 : **William Powers** (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경제학자) **Joshua Meltzer** (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) · 토론자 : **Rachel Bae** (OECD 무역농업국 선임참사관) **Brian Bieron** (이베이 공공정책연구소장) **Sean Wang** (NetEase Kaola 국제사업개발부문 부총재) **최원호** (한국무역협회 e-Biz지원본부장)

참고2 주요 연사 약력

□ 기조 세션

no.	사진	성명	소속 및 직책	주요 약력
1 (사회)		**박태호** Tae ho Bark	**서울대학교 교수** Professor, Seoul National University	- 통상교섭본부장 - 무역위원회 위원장 -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- 미국 조지타운대학 조교수
2 (발제)		**더글라스 어윈** Douglas Irwin	**美다트머스대 교수** Professor, Dartmouth College	-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부교수 -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제금융국 이코노미스트 - 美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
3		**우태희** Tae Hee Woo	**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** Vice Minister, MOTIE	-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-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-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
4		**이샤오준** Yi Xiaozhun	**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** Deputy Director General, WTO	- 세계무역기구 상임 중국대표 - 중국 상무부 부부장 - 주미 중국대사관 상무처 서기관 - 베이징경제연구소
5		**사이먼 이브넷** Simon Evenett	**스위스 세인트갈렌대 교수** Professor, University of St.Gallen	-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- 미시간대 로스쿨경영대학원 객원교수 - 세인트갈렌대 MBA 프로그램 학술국장

□ 2 세션

no.	사진	성명	소속 및 직책	주요 약력
1 (사회)		**안덕근** Dukgeun Ahn	**서울대학교 교수** Professor, Seoul National University	- 現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 - 現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- 교육부, 대학구조개혁위원회 - 現 한-EU FTA 분쟁 패널위원 후보
2 (발제)		**사이먼 레스터** Simon Lester	**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** Trade Policy Analyst, Cato Institute	- 現 WorldTradeLaw.net, LLC 사장 - 법률자문회사 윌키 파 앤드 갤러거 근무
3 (발제)		**유키코 후카가와** Yukiko Fukagawa	**와세다대학교 교수** Professor, Waseda University	- 도쿄대 일반대학원 교수 - 아오야마 가쿠인대 경제학부 부교수 - 장기신용은행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

4		**윌리엄 파워스** William Powers	**美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실장** Chief Economist & Director, USITC	-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연구본부장 -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국제 이코노미스트 - 경제자문위원회 선임 이코노미스트
5		**호세 루이스 베르날 로드리게즈** José Luis Bernal Rodríguez	**주한멕시코대사** Ambassador, Embassy of Mexico in Korea	- 주 체코 멕시코 대사직 역임 - 멕시코 외무부 수석경제고문
6		**제프리 윌슨** Jeffrey Wilson	**머독대학교 교수** Professor, Murdoch University	- 現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리서치 펠로우
7		**정철** Chul Jung	**KIEP 무역통상본부장** Vice President,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	- 現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자문관 - 現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- 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

□ 3 세션

no.	사진	성명	소속 및 직책	주요 약력
1 (사회)		**최병일** Byung-il Choi	**이화여자대학교 교수** Professor, Ewha Womans University	-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-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- 한국협상학회 회장 - 現 FTA 교수연구회 회장
2 (발제)		**조슈아 멜처** Joshua Meltzer	**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** Senior Fellow, Brookings Institute	- 존스홉킨스대 국제무역학과 겸임교수 - 조지타운대 법학대학원 겸임교수 - 호주 외교통상부 법률 자문가 - 호주대사관 외교관
3		**레이첼 배** Rachel Bae	**OECD 무역농업국 선임참사관** Senior Counsellor, Trade & Agriculture Directorate, OECD	- 세계무역기구(WTO) 이사회 - 무역환경위원회 미국 사절단 - USTR 지적 재산 및 혁신 담당관 - 미국특허청(USPTO) 미국관세국경보호청 법률고문
4		**브라이언 비어론** Brian Bieron	**이베이 공공정책연구소장** Executive Director, Public Policy Lab, ebay	-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아젠다위원회 전문가 멤버 - E15 이니셔티브 서비스전문가그룹 멤버 -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 겸임 교수 - 전미무역협회 무역 소위원회 의장
5		**숀 왕** Sean Wang	**넷이즈 카올라 부총재** Vice President, NetEase Kaola	- 아마존 차이나 부사장 - 신젠타 차이나 기업업무 책임자 - 마이크로소프트 대중국지역 사업개발 국장 - AT&T 차이나 도매판매 담당국장
6		**최원호** Won-ho Choi	**한국무역협회 e-Biz지원본부장** Executive Managing Director, e-Biz Services Group, KITA	- 중국 청화대학 최고정책 CEO과정 수료 - 수상경력 : '14년, '09년 무역의 날 유공

참고3 연사별 주요 발표내용

□ 기조 세션

가. 기조 연설 ('35) : Douglas Irwin (美 다트머스대 교수)

- 1990/2000년대, 무역자유화, 중국 등 신흥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 특이요인이 세계 교역을 견인하였으나, 향후 급격한 교역 증가는 어려울 것
-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
- 무역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, 경쟁 촉진,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바 여전히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자유 무역주의가 중요
- 미국 新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시 국제무역체제에서 리더십 손상 우려

나. 토론1 ('10) : 우태희 (산업통상자원부 2차관)

- 보호주의 극복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해 ①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개선 및 효과적인 피해집단 지원제도(TAA; Trade Adjustment Assistance) 마련, ② 서비스·중소기업·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역 확대, ③ 메가 FTA 등 새로운 교역 질서·협정의 지속 추진 등 필요

다. 토론2 ('10) : Yi Xiaozhun (WTO 사무차장)

- 무역이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반무역 정서가 증가하고 있으나, 실제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80%가 신기술과 혁신 등 요인에 따른 것으로, 무역의 일자리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음
- 포용적(Inclusive) 무역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강화, 특히 ① 무역원활화협정(TFA)의 조속 이행을 통한 무역비용 감축, ② 개도국의 글로벌밸류체인(GVC) 활용, ③ 디지털 무역 등 新이슈 논의 필요

라. 토론3 ('10) : Simon Evenett (스위스 세인트갈렌대 교수)

- '15년 1월 이후의 세계 교역 정체는 보호무역 조치 증가가 주요 원인
- 실제 ''16.10월 기준 보호무역조치는 집계를 시작한 '0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,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G20간 국제적 공조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 필요

□ 세션2

가. 발표1 ('15) : Simon Lester (美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)

- TPP의 향방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음
- ① TPP탈퇴시 미국의 신뢰도 저하, ②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소 및 중국 부상 가능성, ③ 공화당의 親무역성향, ④ 지식재산권 등 자국에 유리한 TPP규범 내용 등 고려 시 향후 정책방향 수정도 가능

나. 발표2 ('15) : 유키코 후카가와 (日 와세다대학교 교수)

- TPP 발효시 ① 한-일 FTA 체결효과, ② 한-미 FTA 업그레이드 기회, ③ 원산지 누적효과로 역내 생산 촉진, 글로벌가치사슬(GVC) 발전 등의 효과
- 미국의 TPP 탈퇴시, 11개국간 비준 또는 RCEP에 집중하는 시나리오도 가능, 향후 일본 정부는 RCEP, 한중일 FTA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

다. 토론1 ('10) : Jose Luis (주한멕시코대사)

- 2016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, 호주, 멕시코, 말레이시아, 뉴질랜드, 싱가폴은 조속한 TPP 비준 절차 마무리를 약속, 멕시코 또한 미국의 입장과 무관히 연내 상원 TPP 비준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
- 미국 TPP 탈퇴시 ① 다자체제 강화, ② 미국 없는 TPP, ③ 새로운 양자협상 모색, ④ TPP 최초국(P4) 간 협상체결, ⑤ 중국 주도의 RCEP, FTAAP 참여, ⑥ APEC 보고르 목표 이행을 통한 간접적 TPP체결 효과 실현 등이 가능

라. 토론2 ('10) : Jeffrey Wilsom (호주 머독대학교 교수)

- TPP와 RCEP은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상이한 비전 내포(아태지역 vs. 아세안 국가 대상, 높은 수준 vs.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범, 미국 vs. ASEAN 중심 리더십)
- 향후 RCEP의 추진동력 강화 예상. 특히 RCEP의 비교적 낮은 규범 수준,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적 저항 가능성 등 고려시 높은 자유화 수준보다 '지역 통합'의 의미가 중요한 개도국의 참여 요인이 보다 클 것

마. 토론3 ('10) : William Powers (美USITC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실장)

- TPP발효시 15년 후 美 실질 GDP는 0.15%, 고용은 0.07% 증가하는 등 크지는 않지만 미국은 동 협정으로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, 특히 농업·식품분야 유망

바. 토론4 ('10) : 정 철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)

- 트럼프 임기 내 TPP 비준은 어려워 보이나, TPP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한국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각도 통상전략 수립 및 RCEP, 한중일 FTA 협상을 활용할 전략 마련 필요

□ 세션3

가. 발표1 ('20) : William Powers (美USITC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실장)

- 디지털 무역은 ① 생산성 및 혁신 촉진, ② 무역 비용 감소, ③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성장 촉진, 지금까지 무역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했던 개도국, 중소기업에 더 큰 기회요인
- 디지털 무역 장벽은 ① 현지화 조건, ② 시장 접근 제한, ③ 데이터 프라이버시, ④ 지적재산권 침해, ⑤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, ⑥ 검열, ⑦ 관세 등이 존재
- TPP 등 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 교역 장벽 완화 필요

나. 발표2 ('20) : Joshua Meltzer (美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)

- 디지털 시대, 중소기업은 Alibaba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, 빅데이터·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가능
- 디지털 무역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기구, 양자·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① 인터넷 접근성 개선, ② 비용 감소, ③ 자금지원, ④ 규제 완화 등 필요

다. 토론1 ('10) : Rachel Bae (OECD 무역농업국 선임참사관)

- 디지털 무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, 측정 및 관련 정책 분석시 한계
- OECD는 관련 Framework을 발전시킴으로써, 디지털 무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프라이버시 등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'균형점'을 찾도록 도울 것

라. 토론2 ('10) : Brian Bieron (ebay 공공정책연구소장)

-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, 상업, 결제, 물류 플랫폼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바, 이는 전통적 밸류체인과 구별하여 '글로벌 통합 네트워크'로 지칭가능
-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해 ① 인터넷 접근성 강화, ② 수입관세 면세기준 확대, ③ 디지털 창구 단일화, ④ 환불시 면세, ⑤ 우편시스템 개편, 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, ⑦ 유연한 인터넷 규제 협력 등이 필요

마. 토론3 ('10) : Sean Wang (넷이즈카올라 부총재)

- Amazon, ebay 등의 플랫폼은 소비자를 전 세계의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,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함

바. 토론4 ('10) : 최원호 (한국무역협회 e-biz지원본부장)

- 한국무역협회는 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보 교류 및 기법 확산 노력, ② 전자상거래 선진국 및 선도기업과 공동으로 지원 확대, ③ 국제표준 정비 및 글로벌 플랫폼 구축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것